자동차

Car

한국타이어 자사 제품 獨 최고속 경찰차 부착

한국타이어가 오는 10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에쎈 모터쇼'에서 자사의 제품을 장착한 세계 최고속 벤츠 경찰차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사진〉

이번에 선보인 '브라부스(Brabus) 로켓 경찰차'는 독일 연방교통국과 한국타이어가 공동으로 과도한 튜닝 문화에 대

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펼치는 '안전하게 튜닝을(TUNE IT! SAFE!)'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세계적 튜닝회사인 브라부스가 제작한 이 경찰차는 6.2ℓ V 12 트윈터보 엔진을 장착했으며, 출력은 730마력을 넘는다. 시속 100km까지 도달시간은 4초로, 최고 시속은 양산되는 세단 모델 가운데서 가장 빠른 365.7km에 달한다. 이 같은 성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속 3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한국타이어의 초고성능 타이어 '벤투스 S1 evo'를 장착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힘·스피드 갖춘 '스포츠카' 납신다

벤츠 '뉴제너레이션SL500'

아우디 'TT로드스터'

BMW '뉴 Z4 3.0si 쿠페'

포르쉐 '911카레라'

영화에서나 보던 수입 스포츠카들이 이젠 국내 거리에도 심심찮게 눈에 띄고 있다. 수입 세단에 만족하지 않는 '개성파'들이 스포츠카 구매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입차 업계는 최근 수입차 시장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슈퍼카' 수준의 힘과 스피드, 가속력을 자랑하는 스포츠카나 스포츠 세단을 속속 국내시장에 내놓고 있다.

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최근 수입 스포츠카가 20·30대는 물론 40대 장년층에까지 폭넓은 관심을 받으면서 올 상반기에만 800대가 넘게 팔렸다.

◇**수입 스포츠카 전성기**=수입차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신 모델 스포츠카를 쏟아내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지난해 '로드스터(천정을 열 수 있는 2인승 차)'인 'SLK 200K'(배기량 1796cc)와 'SLK350'(3498cc)을 국내에 선보인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최고급 로드스터 '뉴제너레이션 SL 500'(5462cc)을 출시했다.

BMW코리아는 지난 9월 '뉴 Z4 3.0si 쿠페'(2996cc)를 내놨다. 강인함을 강조한 '선 굵은' 디자인이 특징이다. 265마력의 신형 직렬 6기통 엔진을 탑재해 6초만에 시속 100㎞에 도달할 수 있다. 안전 최고 속도는 시속 250㎞로 펑크가 나도 시속 80㎞로 150㎞를 달릴 수 있는 런플랫 타이어를 달았다. 쿠페는 세단과 달리 옆 문이 좌우 하나씩만 달린 차로 4인승도 있지만 2인승이 일반적이다.

이밖에 아우디코리아는 동글동글한 형태의 'TT 로드스터'(1781cc)를, 포르쉐는 '911카레라' 시리즈를 (3596~3824cc)를 지난해 말 출시했다.

국내 업체들도 스포츠카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10일 '투스카니'의 디자인을 대폭 바꾼 신 모델을 출시했다. 신형 투스카니는 속도감을 강조한 헤드램프와 공격적인 스타일의 휠을 적용했으며, 스포츠카로서 날렵한 이미지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벤츠 '뉴제너레이션 SL500'
BMW '뉴 Z4 3.0si 쿠페' 등
가속도·완벽한 코너링 자랑

GM대우는 2인승 'G2X 로드스터'를 내년 하반기에 내놓을 계획이다. 이 차는 오펠 'GT'의 자매 모델로 지난 4월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된 바 있다.

◇**스포츠카 본능은 '질주'**=스포츠카의 매력은 뭐니뭐니해도 가속력이다. 포르쉐의 '911 카레라' 시리즈와 벤츠의 '뉴제너레이션 SL 500·SLK350' 등은 정지 상태에서 5~5.5초 이내에 시속 100㎞에 이를 수 있다.

한국닛산이 지난 10월 출시한 스포츠 세단 인피니티 '뉴G35'도 빼어난 가속력을 앞세워 출시 보름 만에 100대를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뉴G35'는 최고출력 315마력의 3500cc급 24밸브 VQ35HR 엔진을 탑재해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끌어올리는 데 5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

재규어도 고성능 스포츠카 '뉴XK'(4200cc)를 들여왔다. 차체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무게를 줄였으며, 시속 100㎞ 도달하는 데 쿠페 모델이 6.2초, 컨버터블 모델이 6.3초 걸린다. F1 경주에서 사용하는 패들시프트 방식의 6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해 운전의 박진감을 더해준다.

스포츠카는 가속력을 높이기 위해 차 높이는 최대한 낮추고, 차체도 도로에 거의 붙다시피 디자인한다. 그래야 무게 중심이 낮아져 고속에서 안정된 주행과 코너링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릴 때는 차 바닥이 손상되기 쉽다.

벤츠의 '뉴 제너레이션 SL 500'은 이런 단점을 보완한 시스템을 갖췄다. '액티브 바디 콘트롤 플러스'라는 것이다. 평상시엔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차체 바닥 높이를 속도가 빨라질수록 낮춰준다. 차체를 받쳐주는 서스펜션 시스템(현가장치)이 속도에 따라 차체 높이를 자동 조절하는 것이다. 특히 도로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눈이 내려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서스펜션을 수동 조절해 차체를 평상시보다 최대 5㎝까지 더 높일 수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슈퍼카**=스포츠카보다 한 단계 높은 성능을 갖춘 차로 500~1천마력에 이르는 '괴력'을 앞세워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이 3~4초 안팎이다. 가장 대중화된 슈퍼카로는 '람보르기니'와 '페라리'가 있으며, 대부분 수작업으로 생산된다.

스키장도 가고 무상점검 받으세요

자동차업계 '윈터마케팅' 돌입

자동차 업계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윈터 마케팅'에 돌입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수입차업체들이 스키캠프와 무상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겨울철 고객잡기에 나선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선 '윈터 마케팅'을 잘 활용하면 스키도 즐기면서 차량 무료 점검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스키 마케팅 풍성**=GM대우는 8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윈스톰' 고객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총 1천234명의 고객을 강원도 보광 피닉스파크로 초청해 '윈스톰 윈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윈스톰 윈터 페스티벌에는 윈스톰 구매고객뿐 아니라 윈스톰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면 동호회 회원 자격으로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대우차판매 홈페이지와 GM대우 홈페이지를 비롯해 네이버나 야후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응모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된 1천234명의 고객에게는 스키 시즌권(30명), 리조트 숙박권·무료 리프트권(100명), 1일 리프트권(1104명) 등이 경품으로 주어진다.

기아차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스키장에서 겨울철 마케팅 행사를 개최한다.

스키장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카니발과 스포티지 등 차량을 전시하고 미니카페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현대차를 출고한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1박2일간 강원도 횡성의 성우리조트에서 스키캠프를 열었다.

현대차는 또 12월 한 달간 전국 40여 CGV극장에서 최신 개봉 영화의 시사회를 개최한다.

◇**수입차는 무상점검 서비스**=볼보자동차코리아는 오는 16일까지 겨울철 정기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첨단 컴퓨터 진단장비를 통한 31가지 항목 무상 점검과 부동액과 각종 오일류의 점검 · 보충도 해준다. 또 행사 기간에 서비스센터 방문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해외 여행권을 비롯한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BMW 코리아도 오는 30일까지 BMW 고객을 대상으로 'BMW 윈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 BMW는 차량 무상점검과 함께 오리지널 차량의 액세서리 구입시 20%를 할인해 준다.

이밖에 혼다코리아는 오는 23일까지 타이어와 부동액, 배터리, 오일류 등 10가지 사항을 무상으로 점검해 주고, 재규어·랜드로버도 '윈터 서비스 캠페인'을 16일까지 실시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